

“先進國진입위한 基礎科學육성법 제정”

盧泰愚차기대통령, 科總주최 新年朝餐會서 밝혀

「科學기술振興센터」建立 積極지원



◇ 科總주최 新年조찬회에서 盧泰愚차기대통령은 기초과학연구를 대학과 학회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盧泰愚차기대통령은 1월 7일 『우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범국가적으로 강화, 이미 설정한 2천년대 세계 10대 기술선진국 진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선진국진입을 위해 「기초과학육성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盧泰愚차기대통령은 이날 상오 8시 롯데호텔에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88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조찬회 참석, 『작년 현재 GNP대비 2.2%에 불과한 과학기술투자비를

2천년대까지는 적어도 GNP 대비 5% 수준까지는 끌어 올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고급 과학기술두뇌를 선진국수준으



◇ 盧차기대통령을 중심으로 朴泰源과총회장, 閔寬植명예회장, 왼쪽은 朴育植과기처장관.

로 양성, 확보하고 기초과학연구를 대학과 학회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인력양성과 함께 독자적 기술개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盧泰愚차기대통령은 이어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민주화합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올림픽이라는 國家大事を 앞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과학기술인 여러분은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을 과시하여 세계속의 한국을 부각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盧차기대통령은 끝으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에 비추어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정책과 제도의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우선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구심체인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추진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인 신년조찬회에는 朴泰源과총회장·閔寬植명예회장·金東一원로과학기술자문단장을 비롯 朴肯植과

기치·徐明源문교·吳明제신부장관등 정부관계자와 金基衡·崔鍾浣·李台燮씨등 전직과학기술관, 南載熙민정당 정책위의장·廉吉正국회경과위원장등 국회의원 다수, 趙完圭서울대총장·權彛赫한국교원대총장·沈鍾燮학술원회장·李正五과학기술원장·崔順達과학재단이사장등 학계 및 연구기관대표, 具

滋曠한국발명특허협회장·柳瑋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등 관련기관장, 姜信浩 동아제약<주> 회장·徐柱仁 삼성전기<주> 사장등 산업계대표, 柳武泳제일제당중앙연구소장등 민간연구소대표 다수와 林楨岱한수학회회장등 과총회원단체대표등 범과학기술계인사 570여명이 참석했다.

“基礎연구·高級人力양성에 박차가해야”

과총회장, 學會중심 學術활동 活性化도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7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盧泰愚대통령 당선자를 초청, 88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조찬회를 개최했다.

朴肯植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 閔寬植명예회장, 金東一상임고문등 과학기술관련인사 570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조찬회는 朴泰源과총회장의 개회인사와 盧泰愚대통령 당선자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인사들과의 간담 및 건의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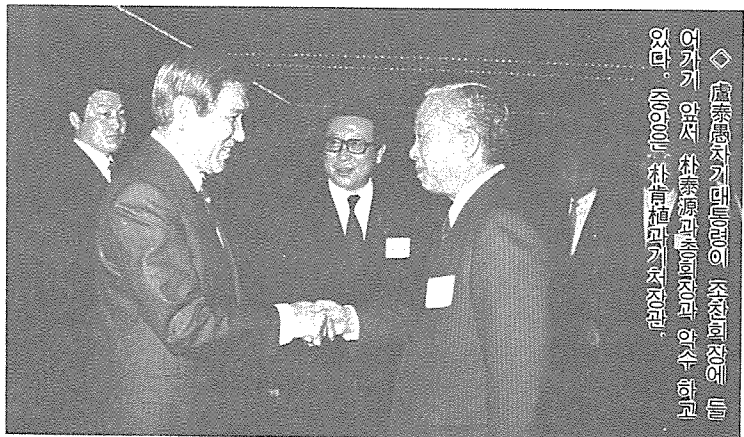
이자리에서 朴泰源 과총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1988년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2천년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도약과 단합을 기약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국민의식속에 창조·능률·합리의 정신이 심어질 수 있는 과학기술풍토가 조성되고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대우받는 사회

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朴회장은 또 『과학기술 투자규모가 2천년대까지는 적어도 GNP대비 5%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할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해야하며 아울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고 학회를 중심으로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써 기초연구는 물론 고급인력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朴회장은 이어 『과학기술 관계법령이 체계적으로 재정비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과학진흥의지에 따라 과학기술처의 격상문제와 기술진흥 심의회의 역할등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朴회장은 『그동안 기치, 경제기획원, 서울특별시 건설부등의 협조로 대지확보를 위한 작업을 추진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문제는 우리 1백만 과학기술인의 20년 숙원 사업이라는 점과 국가 과학기술진흥의지에 부응하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盧泰愚대통령 당선자와 科學技術界總聯合會會長 朴肯植, 閔寬植(명예회장) 등이 함께 인사하고 있다. 중앙은 科學技術界總聯合會 회장 朴肯植과 閔寬植(명예회장)이다.

韓國南極科學基地 2月完工

킹조지섬서 起工式갖고 공사착수 총건평 420평에 8개동 규모로 건설



◇ 西南極 킹조지섬의 韓國基地가 17일 착공, 역사적인 남극개발의 첫 장을 열게 됐다.

西南極 킹조지섬에 설치되는 우리나라 南極科學基地건설 기공식이 구랍17일 현지에서 宋源五기지건설추진사업단장을 비롯 건설관계자 및 보도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역사적인 남극개발의 첫장을 열었다.

지난 10월 6일 울산항을 출발한 現代重工業소속 HHI 1200 호로 기지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설기자재와 통신장비, 설상차, 오물처리시설 및 담수화시설 및 연구기자재와 함께 1백 60여명의 건설단원들이 항해70여일만에 현지에 도착, 이날 기공식을 갖고 첫 삽질을 했다.

한국기지가 건설되는 킹조지섬은 남극대륙 서북쪽 반도끝

에 위치한 제주도보다 약간 작은섬으로 2만여평방미터의 평탄한곳. 이섬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2.6도로 다른곳에 비해 따뜻한 뿐더러 南美대륙 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와 교통 및 통신이 편리한 잇점이 있어 아르헨티나·칠레·중공·소련·폴란드·우루과이·브라질등 7개국의 과학기지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을 3월 기지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8번째로 남극과학기지를 갖게되며 남극 및 탐사자료등의 교환을 통해 極地工學기술개발로 세계적인 극지개발프로젝트 참여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이곳에

무진장으로 매장되어있는 석유·석탄·철·다이아몬드·코발트 등 지하자원과 크릴새우자원의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남극과학기지의 건설규모는 8개동에 총건평 420평으로 30평규모의 본관건물을 비롯 과학자 및 지원인원의 주거용의 주거동, 81평의 연구동, 48평의 하계연구동, 120평의 발전 및 식품저장동, 49평의 장비지원동, 각기 5평씩의 地磁氣관측소 및 地電波관측소등 8개동으로 구성된다.

「위성기상부」등 新設 氣象台, 직제확대개편

中央氣象台는 기상재해예방과 對國民기상정보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상관측, 예보, 기상기술개발 및 교육전담 부서를 보강하는등 구랍15일자로 직제를 확대 개편했다.

주요내용은 대전지방 기상대(3급), 제주고층레이다측후소(4급), 철원측후소(5급)와기상연구소 산하에 위성기상부(3급), 기상연수원에 교학과, 부산과 광주지방 기상대에 각각 정보운영과, 장수와 춘양기상관측소를 신설했으며 이리와 대정기상관측소를 폐지했다.

그리고 본대의 기후국을 응용기상국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기후자료과, 농업기상과, 항공기상과를 두었으며 예보국의 예보과와 예보분석관을 각각 예보관리과와 예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등 정원 100명을 증원했다.

“技術開發 노력 지속돼야”

産技協, 올기술개발정책 綜合意見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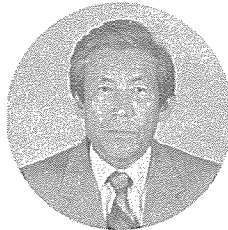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룩한 무역수지흑자기조의 정착과 民間主導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技術革新의 촉진·확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가 지난해말 정부당국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88년도 기술개발정책에 관한 종합의견」에서 현 경제사회는 원貨절상, 지적소유권의 확대인정압박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의 수용과 기술개발주도전략의 지속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첫째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양성에 국가가용자원의 최우선배분, 둘째 대학·시험연구기관의 연구기능 활성화 대책수립, 셋째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산업현장기술개발의 촉진, 넷째 기술혁신의 국제화전략 적극전개, 다섯째 연구단지건설의 적극화, 여섯째 기술혁신촉진정책의 지속적 확대·강화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산업계에서는 ▲분배의 개선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력을 일층 가속화하고 ▲고

급기술인력의 자체 양성확보와 기술자우대풍토를 조성토록하고 ▲공동연구 및 협동연구를 통하여 기술집약 산업구조형성을 구현토록하고 ▲기술중심의 新국제분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과제로 하는 등 국제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술이전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적 기술개발투자확대와 기술중심의 기업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새 社長에 崔熙云씨 선임 韓國技術開發<株>



〈崔熙云사장〉

韓國技術振興 주식회사(K-TAC)는 구랍 4일 한국과학기술원 임원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安泳玉 사장후임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崔熙云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

신임 崔熙云 사장은 54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한후 6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入所, 공업화학부

장, 연구조정부장, 기업기술지원센터장, 기술발전평가센터장을 거쳐 현재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기술평가위원으로 재직해 왔다.

49개 우수연구과제 전시

科技院, 연구사례 발표

韓國科學技術院(원장李正五)은 최근의 연구개발활동 및 우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87년도 研究事例發表會를 구랍 1일부터 5일간 科技院 서부지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化學분야 등 9개분야에서 「항히스타민제의 국산화」등 총 49개 과제가 소개되었는데 분야별로 보면 「고분자」분야가 9개 과제로 가장 많고 「화학」 「기계공학」 「물리전자」 「재료공학」 「시스템공학」분야가 각각 7개 과제, 「유전공학」분야 3개 과제, 그리고 「해양」분야와 올림픽지원 분야가 각각 1개 과제등이 전시됐다.

2年内 자체회관 건립키로

在日科協 사무실 이전

在日韓國科學技術者協會(회장 朴權熙)는 숙원사연인 在日科協會館 건립계획의 기본방안을 확정하고 향후 2년 이내에 회관을 건립키로 했다.

이에따라 동협회는 회관건립시까지 사용할 협회사무실을 지난해말 이전했는데 이전주소는 다음과 같다.

〒160 東京都 新宿區 若葉 1-5 内海Bldg 4층

당근 건조형 人工種子 개발

遺傳工學센터연구팀, 體細胞유전기법이용

1세대 雜種이나 유전공학기법에 의해 창출된 당근을 건조형 人工種子 형태로 배양기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韓國科學技術院 遺傳工學센터 劉長烈박사팀이 지난 85년부터 3년동안의 연구끝에 개발한 이 人工種子 생산기술은 1세대 잡종 및 유전공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작물의 번식과 형질생존은 물론 고구마 감자등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의 번식행태를 종자번식으로 전환케 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 인공종자는 기존 水化型의 인공종자가 하이드로겔 캡슐로 되어있어 100%가까운 습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만 저장 가능하고 견고하지 못해 취급이 어려운 것과는 달리 상온조건(습도 3~40%, 온도섭씨 25도)에서도 저장이 가능하고 수분접촉이 없으면 발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벼·보리·콩 등 일반종자와 비슷한 견고도를 갖고 있다.

당근의 건조형 인공종자가 개발됨에 따라 體細胞胚 발생과 발아등의 技術규명을 위한 실험시스템을 공급하게 됐을뿐만 아니라 한알당 0.2원의 싼 가격으로 우량 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종자를 공급할 수 있

게 됐는데 유박사팀은 현재 이 기술에 대한 국내 및 美國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의 潤秒」 실시

금년 1월 1일부터

韓國電子通信연구소 부설 天文宇宙科學연구소는 세계협정시(UTC)를 주관하는 國際時報局(BIH)의 통보에 따라 금년 1월 1일 0시(UTC) - 한국표준시로 1월 1일 09시 -에 양(+)의 潤秒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시각으로 1988년 1월 1일 08시59분59초와 09시00분00초 사이에 08시59분60초를 삽입한다. 즉 윤초 실시이전의 09시00분01초가 그 실시후 09시 정각이 되어 08시59분 정각과 09시정각 사이의 시간은 61초가 되고 평상시보다 1초가 길어진다.

시간의 기본이 되는 「秒」의 정의는 1956년까지는 소위 「평균태양초」라 하여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태양일)을 1년간 평균한 「평균태양일」의 1/86,400을 1초로 사용하였고 56년부터 67년까지는 이보다 좀더 균일한 「역표초(Ephemeris Second)」가 사용되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경도0)이 세계 공통시각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그리니치평균시각(GMT)이다.

그러다가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발명된 原子時計가 지구 자전이나 천체운동보다는 더 규칙적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세습원자시계를 기준한 「초」를 67년에 새로 정의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자초」는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천문학이나 항해를 위해 지구위치를 가르키는 시각이 필요하므로 지구자전에 의한 시각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UT1(세계시-1)이라고 하며 이 UT1이 종전의 GMT에 해당하는 것.

따라서 「원자초」에 의해 시각을 유지하려면 어떤 한 시각에서 UT1과 일치시켜(실제로 72년 1월 1일 0시에서 일치시켰음) 이를 시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원자시는 지구운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UT1과 차이가 나게되며 그 차이가 너무 커지면 불편하게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시에 의하여 시각은 유지하되 이 시각이 지구 자전에 의한 시각과 0.9초이상 차이가 나면 1초를 더하거나 빼서 항상 원자시의 시각이 UT1과 0.9초 이내에 있도록 한것이 세계협정시(UTC)이며 이때 1초를 더할 경우 「양의 윤초」라 하고 1초를 뺄 경우 「음의 윤초」라한다.



韓國音響學會

韓國音響學會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구랍 5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려 새회장에 殷鍾官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학과교수, 부회장은 張志元 부산수산대교수·玉正权 한국화학장지대표·安秀桔 서울대 전자공학과교수를 각각 선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KAIST 이병호씨의 「하늘이 왜 푸르게 보이나?」 서울대 임재열·안수길씨가 공동연구한 「음소분류를 이용한 한국어 연속 숫자 음인식에 관한 연구」등 22편의 최신논문이 발표됐다.

韓國太陽에너지學會

韓國太陽에너지學會는 구랍 5일 대한건축사협회 강당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鄭玆采교수(경희대 화학과)를, 부회장에 朴依東교수(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새로 선출하고 吳正茂(동자연태양에너지 연구부장)·朴元薰(KAIST 화학공학부) 부회장은

유임시켰다.

한편 총회에 이어 열린 창립 10주년축하연에서는 任長淳인하대 기계공학과교수)에게 학술상을, 李鍾鎬동자연 태양에너지연구부 설비형실장에게 기술상을 수여하는 한편 학회업무에 협조를 많이한 3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한편 창립10주년기념 학술강연회에서는 윤수길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의 「대체에너지개발정책」 오정수 동력자원연구소 태양에너지 연구부장의 「자연형 태양열 이용기술의 현황 및 전망」등 두편의 특별초청강연이 있었으며 아주대 화공과 김철씨의 「바이오메스 자원의 이용전망」등 8편의 학술강연이 있었다.

韓國疫學會

韓國疫學會는 구랍 5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04 호에서 198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金駟舜교수(연세대보건대학원장), 부회장에 廉容泰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를 각각 선출하고 감사는 유임시켰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을 개최, 「정상성인에 있어서의 Hepatitis B Virus 감염에 관한 혈청역학적 연구」등 9편의 논문발표와 「우리나라 주요 법정전염병의 추이와 관리전략에 관한 심포지

움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김문식 보사부 병역과장이 「신고자료를 중심으로 한 법정전염병의 추이 및 관리」, 김정순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가 「연구자료에 의한 신고자료의 Validity 및 보충적 역학적특징」 정희영 가톨릭의대교수가 「우리나라전염병발생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다.

韓國情報科學會

韓國情報科學會(회장 金宗相)는 구랍21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工學 연구회 제 1 회 정기총회 및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소프트웨어工學 연구회 총회 및 세미나에서는 Super프로젝트추진방향과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생산성 및 품질 향상분야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선진제국의 동향이 소개되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과학기술처 郭鍾善국장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정책」 KAI ST시스템공학센터 金奉一분소장의 「Super프로젝트 추진방향」 등 특별강연 두편과 카네기멜론대학 강교철박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외국동향」에 관한 초청 강연이 있었다.

韓國化學工學會

韓國化學工學會(회장 金炳珍)는 化學工學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化學工學科 및 工業化學科 3, 4 학년재학생으로 전학년까지의 전체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장학생 선발은 大林産業의 후원으로 시행되는데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확정된 학생 및 학비면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소정양식의 장학생 추천신청서와 학과장 추천서, 재학생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월 20일까지 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 925-1391~2)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100만원(1,2학기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韓國生藥學會

韓國生藥學會는 구랍 19-20 양일간 충남 유성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새회장에 洪南斗교수(경희대 약대), 부회장에 이인남(이화여대 약대교수)·원도희(보건연구원 분석사업과장)·이경순(충북대 약대교수)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이화여

대 이인남교수에게 학술상, 경희대 김남재교수에게 남강상을 수여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 이화여대 이인남교수의 「Biological activity of Duchesnea indica Herba」 등 세편의 특별강연과 학술상 및 남강상 수상자의 수상강연이 있었으며 「해당화 지하부의 혈청콜레스테롤치 저하효과」 등 48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韓國窯業學會

韓國窯業學會(회장 韓基成)는 구랍 18일 학회사무실을 강남구 방배동 984-1 머리재빌딩 405호로 옮겼다.

전화: 584-0185

大韓建築學會

大韓建築學會(회장 李光魯)는 구랍 18일 87년도 제 1 회 연 구 용 역 및 安全度 조사 연구 결과 발표회를 학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P.C고층 아파트 구조검토연구」 「고압벽돌 벽체의 강도성능시험연구」 등 지난해 4월 이후 수행한 연구용역사업과 「동아수출공사사옥 구조 안전도 조사연구」 「여의도 럭키금성사옥 현장공사로 인한 공작아파트건물의 안전도 조사연구」 「염창동 길훈아파트건물 및 옹벽구조 안전도 조사연구」 등 안전도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동학회는 日本 일 건설계의 小角亨씨를 초청, 일본건축계에 있어서의 건축설계 방법과 수주방법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韓國體育學會

韓國體育學會(회장 宣炳基)는 구랍 15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生體力學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에 관한 연구결과와 스포츠기술분석에 관한 새로운 기법이 소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宣炳基 회장(고려대교수)의 「스포츠사이언스의 내면성」에 관한 주제강연을 비롯 서독 에센대 Ewald. M. Henning 교수의 「생체역학 연구를 위한 각종 측정기구의 제작과 이용」 일본 와세다대 Nagata Akira 교수의 「일본의 체육과학응용의 실태」 등 4편이 발표됐다.

韓國原子力産業會議

韓國原子力産業會議(회장 韓鳳洙)는 구랍 3일 韓電본사 회의실에서 제 42차 이사회를 열고 8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확정했다. 韓鳳洙 회장 주제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1988년 이 原電 10년을 맞는 해로써 原子力 전 시 회 를 비롯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이기로 했다.